

제 9 회 시문에 공모전 당선작

당선작

내게로 저 많은 새페들이

박도준 (국문 4)

혼자 돌아오는 기억의 길 뒤편으로
후두둑 날아오르는 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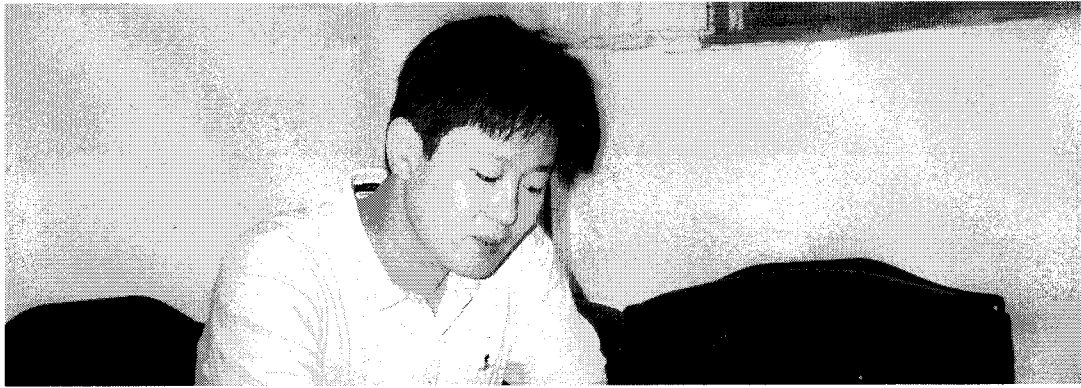
무엇인가 날아가 저녁 하늘
고운 모래알로 박히고
나는 빈 가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리와
어깨를 칠 것만 같았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몇 잎 사슴과리
내게로 저 많은 새페들이 날아와
잠시 머무를 수 있다면 ...

하늘, 그 고운 채 속으로
반짝이며 지워지는 것들을 향해 저물도록
손을 흔들며 주었다

몇번인가 마주쳤을, 내것이었을
저 많은 새페들
눈부신 햇살처럼 온몸에
깃들고 있던.



당선 소감

오랫동안 한 여자에 뒤를 쫓아 다닌 적이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써둔 편지를 들고 '그 집앞'을 서성 이곤 했다. 편지의 뒷면에는 좋아하는 시 한편을 꼭 적었는데, 그 여자에는 시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뒷면을 읽지 않는 그녀를 보내고 시를 붙잡았다. 시를 쓸수록 시가 시시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참한 느낌이 든다. 그녀에게 보냈던 연애편지처럼 '세상'에 보내는 나의 시는 늘 편지의 뒷면에 쓰여 있어서, 발다른 사람이 읽으려 애쓰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내 시가 가진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 그럼에도 나는 세상에게 '편지 띄우는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가작

당선 소감

오랫동안 헤아려보나 1년 5개월 동안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게 고통이었지만 또 한 희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은 희열없는 고통이었다. 시가 내 삶을 지탱해 주던 힘이었음을,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하고 나서야 새삼 깨닫는다. 대학주보로부터 받는 두 번째의 가작이다. 94년도에 가작을 써내고 이번에도 가작에 머물렀으니, 4년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음을 아프게 깨닫는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써야겠다고 말해야 하는데 당연하겠지만, 오히려 내가 시를 쓸 만한 자질이 못됨을 이수상소감을 위한 지면에서 고백하고 싶다. 그리고 오랫동안 좋은 시를 써왔으면서도 상복이 부족했었다가, 마침내 이번에는 당선작을 낸 동기 도준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 내가 알기로, 그는 태어나기를 시를 쓰려고 태어난 사람이라 믿는다. 부족한 작품을 선택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쓰기를 가르쳐 주신 시집 선배님들, 특히 현숙누나에게 감사드립니다.

협계열차

배호남 (국문 4)

그건 내게는 먼저 가득 오래된 단어들 같은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어릴 적 가지고 놀다
다락방에 던져버린 장난감 기차같은 걸까
그래서 달릴 때마다 먼저 풀풀 날리는, '그리움'이라거나
'파도소리' 같은 마음에 오래 묵혀둔 단어들
그 장난감 기차가 어느날 네 두 다리 위로 치차폭풍
가뽏히 지나가고 네 두 다리가 잘려나갔을 때
우리의 빈약한 추억이 배경으로 흘렀으리라
짐작하기도 했지 그 후로 너는 삶이 빈내에 웃은 법을
배웠지만, 그 빛 속에서 네 젖은 그늘을 찾으려했던 만큼
내가 네게 가진 고향이 모자랐구나

한 번도 본 적 없으니, 일찍이 던져버린 장난감 기차같은
운명
우리의 것이 아닌 세월 한 가운데로 치차폭풍 먼저 불으며
가뽏히 달려갈지도 모르겠구나

가작

당선 소감

편입한지 석달이 지났었다. 수요일까지만 수업이 있어서 보통 목요일 이후는 여행을 다녔었다. 신문 사로부터 내가 쓴 시가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동갑 사촌이 있는 부산에서 막 돌아온 뒤였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탈진할 지경이었지만 너무 감사했다. 마감날 학교에 가서 원고를 내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작정했는지 모른다. 신문사 책상위에 쌓아둔 다른 학생들의 원고가 훨씬 많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저 행운이라고 믿는다. 늘 논리력이 부족해 감상적인 헛점을 드러내 보일가 두려워 문장의 군더더기를 버리고 절제된 언어를 썼는데 이점을 심사위원님들이 참작하셨으리라 믿는다. 나는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지 모른다. 이 시는 내가 푼답고 있던 서울산업대 문장과 이시라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던 거라 의미가 깊다. 앞으로 문학과 함께 걸어갈 아픔에 대해 약간의 자신감을 가질 것 같다. 내 삶은 그동안 살얼음판을 다리는 것 같이 위태로운 적이 많았다. 삶을 인식하고 경험을 해석하는 '보는 일'에 충실하고 싶다. 마침 합격된 소식을 접하고 이대 철학과를 졸업한 중학교 친구 현정자에게 전화가 왔었다.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 주던 친구라 너무 고맙았다. 무엇보다도 미숙한 졸작을 뽑아주신 대학주보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작은오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한우물을 파라던 십년지기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심리전

윤명숙 (지리 3)

늘 일어나고 싶지 않은 아침이면
양상한 매너리즘과
작별을 하기로 결심한다.
다시 이불 속에 파묻혀
의식의 흐름이 멈추어질 즈음이면
현란한 쇼윈도우의 대죽음이 떠올라
폭발한 아침을 마셔버린다.
허둥대고 비틀거리는 패배의식이
지독한 심리전으로 항변을 하여도
감옥을 6일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사평

연과 연의 시상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

'내게로 ...', 시언어 선택과 구문화과정 탁월

대학주보사의 시문에 현상공모가 올해로 제 9회째에 이르러, 경희학원 예비시인들의 기량에 대한 기능대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예심을 통과하여 본선에 올라온 응모작은 응모한 학생 중 17명의 시로 편수는 모두 120편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시를 둘러가며 읽고 절반 정도의 작품을 추린 다음, 다시 같은 방식을 반복하여 입상권에 드는 5명의 예비시인을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의 시를 면밀히 읽고 충분히 협의하며 당선 1편, 가작 2편, 입선 2편을 결정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지난해보다 응모편수가 적었고, 특히 예선에 비해 수원캠퍼스 학생들의 수준있는 응모작이 적어 아쉬움이 남았다. 개개인의 작품들은 1990년대의 다원주의 시대와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탓인지 다양한 관심의 범주를 보이고 있었지만, 아직 프로 수준의 문학성에 이른 작품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고 또한 특별한 형식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작품도 찾기 힘들었다. 다만 여전히 시문학에 대한 치열한 관심과 애정은 전혀 시들이 보이지 않아 적잖은 안도감을 주었다. 당선작으로 뽑힌 박도준의 '내게로 저 많은 새페들이'는 새페의 비상을 시작 화자의 내면심상과 겹쳐 보이면서, 구문과 구문 및 연과 연들이 유연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수작이다. 그리하여 시 전체를 한 호흡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읽을 맛이 나게 하는 시이다. 시적언어의 선택과 그것을 조합하는 구문화 과정이 매우 안정감이 있으며, 작품 전체를 통해 일종의 나르시시즘적인 환영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이를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가작으로 선정된 배호남의 '협계열차'는 시적 사조의 운용이 깊이가 있다. 과거의 기억과 시간의 흐름속에 쌓이는 감정이 존재론적인 차원의 개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협계열차'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시적 화자의 경험세계,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듯한 뜻밖의 느낌을 주는 시이다. 또 다른 가작인 윤명숙의 '심리전'은 짧은 시이지만, 짧은 시가 끌어안을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렸다. 저물적으로 자신을 응시하며 자신의 내면에 대해 자성하는 의지가 반어적 기법과 더불어 일정한 완결성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도 입선작인 이상봉의 '그 해 겨울'과 송태문의 '그녀가 떠나거든'을 비롯해서, 입상권에 들지 못한 작품들 중에도 아까운 시들이 많았다. 이로 인하여 낙망하지 말고 더 단련하여, 오히려 더욱 좋은 시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종희(국문과 교수)

응모수 : 172편(총 31명)
본심 : 120편(총 17명)
당선 박도준(국문 4)
가작 윤명숙(지리 3), 배호남(국문 4)
입선 송태문(경영 4) 이상봉(국문 3)
본심 심사위원 : 박이도, 김종희 교수

병역제도안내

대학생 복학시기에 맞추어 입영통지 제도화
97년도부터 다출연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그해 10월말까지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당초 입영계획 수립시 반영하며, 특히 전역후 바로 복학이 가능한 입영시기인 12월~1월과 6월~7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사회적성과 군기술 특기 최대한 연계충원
병역의무자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자격, 전공학과 등 특성을 군기술과 최대한 연계충원할 수 있도록 군의 병과학교 기술특기 양성 교육 계획에 맞추어 입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특히 통신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통신학과 특기병 교육과정과 상호연계하여 입영시키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군부속 적성인 중장비 운전, 중장비 정비, 항공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전련 육군 제2훈련소에 입영시키며, 이미 다른 입영부대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를 육군 제2훈련소로 변경하여 입영하도록 한다.

향토예비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 편성대상	
계급별	편성대상
장교	군인사법(제8조 제1항)이 정한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준사관	군인사법(제8조 제1항)이 정한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하사관	병
병	전역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집해제보충역	소집해제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 편성대상
전시·사별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편성에 부대별·특기별로 동원지정

병력동원원료소집
전시 중·장성부대에 동원지정된 동원예비군에 대해 편성에 전시 임무 숙지 및 부대 소속감 고취를 위한 훈련

대상 - 전교·하사관 : 전역 이듬해부터 예비군복무 7년까지
병 : 전역 이듬해부터 예비군복무 4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 병역법에 근거, 지방병무청장이 소집, 부대에서 재영훈련
향토예비군교육훈련 : 예비군설치법에 근거, 군부대장이 소집, 출·퇴근훈련

서울지방병무청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실업자 재취업무료교육 실시—

1. 교육대상

- 실업자
- 본교 졸업생
- 교직원

2.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시	개강일	비고
중소기업창업실무강좌	10주	월. 수 18:30~21:20	5월20일	창업실용 기업방문 강사진·김현희교수의 다수 면접후 교육 선학수 20명
창업 School	3주	수. 금 17:30~19:30	5월13일	강사진·김현희교수의 다수 30명 정원 평생교육원 강사진의 무료교육
플라워샵	2주	월·목 (시간:후후교)	미정	

3. 접수기간

- 중소기업창업실무강좌 : 오늘까지

4. 제출서류

-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반영합사진 3매

5. 문의 및 접수장소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평생교육원

(체육대학관내 112호)

Tel : 0331-201-2156~7

Fax : 0331-204-8124

평생교육원

PR장학금 안내

◇ 모집대상

대학구성원(교수·직원·학생)들이 보내준 기사 소개 및 행정개선 아이디어가 기사화 또는 행정개선 사항으로 채택되면 아래와 같이 포상
- 교수·직원 : 기념품 / 건
- 학생 : 5만원 / 건

◇ 제출방법

직접, Fax(965-0939), 천리안(otkotk), E-Mail(tkoh@nms.kyunghee.ac.kr)
A4지에 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자 날인하여 발송

◇ 문의처

대외협력실(961-0023~5)

대외협력실

신입실원 모집

행정고시반에서는 창간하고 열의있는 98년도 2학기 신입실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대상
행정고시(지방행시 포함),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재학생
 2. 시험일시
98년도 5월 25일 오후 5시
 3. 시험장소
사회과학대학 4층 행정고시반실
 4. 원서교부 및 접수
사회과학대학 4층 행정고시반실
 5. 시험 과목
가) 1, 2 학년 : 영어
나) 3, 4 학년 : 영어, 헌법
- 수원 캠퍼스 행정고시반

사회교육원 건강강좌

사회교육원에서는 건강강좌를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좌일정>

- 제1차
· 강좌명 : 당뇨병 예방과 치료
· 일 시 : '98. 5. 12 (화) 15:30 ~ 16:30
· 장 소 : 본관 대회의실 (2층)
· 강사명 : 김진우 교수 (경희의료원 내과 교수)
- 제2차
· 강좌명 :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
· 일 시 : '98. 5. 19 (화) 15:30 ~ 16:30
· 장 소 : 본관 대회의실 (4층)
· 강사명 : 김혁은 교수 (경희의료원 핵의학과 교수)
- 제3차
· 강좌명 : 치매 예방과 치료
· 일 시 : '98. 5. 26 (화) 15:30 ~ 16:30
· 장 소 : 본관 대회의실 (2층)
· 강사명 : 배형선 교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내과 교수)
- 제4차
· 강좌명 : 고혈압 예방과 치료
· 일 시 : '98. 6. 2 (화) 15:30 ~ 16:30
· 장 소 : 본관 대회의실 (2층)
· 강사명 : 배형선 교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내과 교수)

사회교육원장

재학생 주소 정정

1. 정정기간
98. 5. 19(화) ~ 5. 26(화)까지
2. 장소
소속대학 학과(부) 사무실
3. 정정방법(수원캠퍼스)
학과(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보호자 성명을 확인후 붉은 펜으로 정정바람.
(단 하숙이나 자취집 정정은 불가함)
4. 비고
학과(부)에 있는 주소록 확인후 틀린내용을 수정, 보완 하여야 방학중 발송하는 각종 가정통신문을 받을 수 있음.

교무처장

졸업사건 촬영일정

일 자	19(화)	20(수)	21(목)	22(금)	
야외촬영	행정학과 09:00	영어영문학과 09:00 회학과 10:30	임학과 09:00 중어중문학과 10:00	사회학과 09:00 수학과 10:00	
학 사 모	도예학과 09:00	조경학과 09:00 서반이과과 10:00 일어일문학과 11:00	식품공학과 09:00	원예학과 09:00 태권도학과 10:00 러시아어학과 11:00	
일 자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야외촬영	섬유학과 09:00 우주과학과 10:30	체육학과 09:00	불어불문학과 09:00 화학공학과 10:00	원자력공학과 09:00 산업디자인학과 10:30	경영학부 경영, 무역, 회계 09:00
학 사 모	물리학과 09:00 농학과 10:00 국제관계학과 11:00	유전공학과 09:00 기계공학과 10:00	전자전자계열 전자공학과 09:00	건축공학과 09:00	산업공학과 09:00 환경학과 10:30
일 자	6월1일(월)				
야외촬영	토목공학과 09:00				
학 사 모	전자계산공학과 09:00				